제8강 그리스 문학의 역사 : 비극 성립의 배경 (2)

개요 : 그리스 문학은 서사시-서정시-비극의 순서로 발전했고, 비극은 기원전 5세기경에 태동했다. 장르의 형식의 차이 및 특징을 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한다.

▶ 아우라의 상실 시대

신적인 삶의 완전성과 대조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는 사실 삶이 신성함의 아우라를 상실한 우리 시대에 절실한 물음이다. 우리 문학에선 신이 빠져버렸다. 문학은 원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적 감수성, 곧 지상적 삶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되어 있을 때 문학은 참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문학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종교적 감수성이 빠져 있다. 만해 이후 현대 문학을 통틀어 어느 시인도 그 이상의 깊은 종교적 감수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깔고 말하거나 종교철학의 습작과 같은 작품은 있지만, 삶의 초월적인 지평을 열어 보이는 문학은 없다. 우리는 너무나 문학을 세속화시켰다. 신이 빠진 내면성은 허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서양 철학과 문학에서 신은 늘 대화하는 타자적 주체였다. 그것이 비록 홀로주체성 속에 갇힌 한계를 드러내긴 해도 이들에게 신은 언제나 타자적 인격으로 구실해 왔다. 대화하고 비추어 보아야 할, 마주 서야 할 절대적 타자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면 남는 것은 적나라한 욕망밖에 없으며 그때의 내면성은 나르시시즘에 다름 아니다.

서정시

서사시가 삶의 총체성을 다루고 있다면, 서정시는 주관적 내면 세계를 그리려 한다. 서정시는 자기 밖의 객관적 세계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와 그 내면 세계에 비친 외부 세계를 노래한다. 본질적인 것, 참된 것은 정신의 내면이다. 여기 비친 세계는 정신의 변양태(modification)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식하고 그것이 내 안에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다.

서정시에서처럼 내면 세계가 드러나려면 정신의 자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 사유의 발전 과정은 점차적으로 삶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정신이 자기를 대자적으로 의식해 나가는

과정이다. 철학과 서정시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이 과정을 촉진시켰다.

철학은 신화적 세계를 지양하고 객관적, 자연적인 세계를 정립하였다. 그리스 철학의 전개에서 피타고라스 철학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다. 한편에서 그것은 자연을 수(數)로 파악함으로써 자연을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피타고라스는 인간 영혼 윤회설을 주창하여 의식이 몸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정초하였다(의식의 자립성). 이로부터 영혼은 하나로서 여럿인 몸을 거느린다는 인식이 가능해졌다(의식의 보편성).
플라톤을 거쳐 기원전 6세기에 이르면, 인간의 영혼이 즉자적인 세계로부터 자기를 떼어 내어 자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세계는 수이고, 수를 인식하는 것은 정신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진리는 정신 속에서 정초된다. 이런 바탕 속에서 고대적 주체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편 정치적으로 이 시대는 참주(tyrannos)들의 시대였다. 그리스 평민들은 귀족의 지배를 완전히 전복할 수는 없었지만 참주정치(일인지배체제)를 통해 권력 체제를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참주체제의 과실은 평민들에게도 고루 분배되었다. 참주는 부와 권력을 한껏 거머쥔 교양 있는 개인들이었다. 호메로스의 영웅들이 공동체와 밀착되어 있었던 반면, 참주는 개성 있는 개인으로서 공동체와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기원전 6세기는 인간이 공동체와 자동적으로 일체화되던 시대를 벗어나 개인적 주체로서 자기를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만큼, 아니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외적인 세계로 환원될 수 없는 정신 세계의 발견은 곧 '나'의 발견이요 주체의 발견이었다.

이러한 서정시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시인은 '나'를 노래하기 시작한다. 시인의 내면 세계가 펼쳐지는 지평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은 서정시인의 의식이 운동하는 지평이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회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한 서정시 안에서 중첩되어 나타나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가 비극적 정조를 드러낸다.

서정시에서 의식은 판단이 아니라 느낌으로 기울어진다.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다. 삶의 비극성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사시와 다르다. 공간적 병치와 대립이 아니라 내면의 대립, 즉 주관적 삶의 비극성이 문제다. 서정시에 이르러 고통은 처음으로 주관적 반성의 대상이 되었고, 느낌은 고통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비로소 삶의 고통과 비극성은 그것을 느끼는 의식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서정시에서 대립되는 힘들의 충동은 내면 세계의 자기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간적 지평 속에 펼쳐진다. 시간 속에선 어떤 것도 자기 동일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시간은 자기 부정의 형식이요, 시간의 부정성이 곧 삶의 비극성을 잉태한다. 서정시적 의식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이 묶여 있는 시간의 계기를 반추하고, 이를 통해 시적 자아에 보편성을 부여한다. 서사시가 공간적인 총체성을 보여줌으로써 보편성을 보여준다면 서정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시간성의 지평을 열어 보임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삶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서정시에선 절대로 합일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였다가 끝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한다. 서정시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비가(悲歌)적일 수밖에 없다.

서정시가 개인을 문학적 반성의 전면에 내세운 것의 영향에서 비극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한 작품 전체의 반성의 대상이 된다.

☞ 참고도서: 『정신의 발견』, 브루노 스넬, 김재홍 옮김, 까치.